



Off JOB의 안전을 추구하는 선진 기업

-MEMC Korea Company(MKC)-

독립기념관과 해외동포들의 영원한 안식처인 망향의 동산이 자리잡고 있는 역사의 고장, 미래가 있는 도시 천안에서 재해없는 건강한 사업장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추구하는 기업이 있어 찾았다.

충남 천안에 위치한 회사로 세계1위 철강회사인 포항종합제철(주) 세계 최대반도체회사인 삼성전자(주)

그리고 세계2위 웨이퍼 생산업체인 미국의 MEMC사가 합작하여 1990년 12월에 (주)포스코홀스로 시작한 MEMC Korea Company(MKC)가 선진 안전기술을 적용시키고 있는 국내에서 보기 힘든 기업이다.

지금 MEMC와 삼성전자가 각각 80 : 20의 지분으로 MKC로 새로이 시작하고

있으며 최첨단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고 있다.

실리콘 웨이퍼는 반도체 소자의 회로를 직접 구성하는 핵심소재이며, 반도체 산업의 필수 첨단 소재로 150mm 및 200mm 직경의 대구경을 양산한다. 이는 국가의 전략적상품인 반도체 핵심소재를 국내에서 생산한다는 것에 대해 경쟁의 시대 21세기인 지금의 미하는 것이 많다.

설립당시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해야한다는 주장에 따라 안전관리가 엄격한 미국의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고 설립당시부터 MEMC의 환경안전보건 시스템을 적용시켜 왔다.



▲ 박재현 이사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TOP의 의식

『안전과 보전은 회사 사업활동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언제나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우선순위를 갖고 있습니다.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생산과 품질의 목표달성은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박재현 이사의 말에서 이곳 임원들

의 안전의식을 쉽게 알 수 있다.

지금 MEMC의 환경안전보건(ESH: Environment Safety Health)이 정착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이경환 팀장에서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안전이 잘 된 것은 아니다. 미국 MEMC의 ESH를 한국에 도입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최고 경영자가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안전문화가 있어 정착 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또한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회고한다.

처음 이 곳에서 안전업무를 수행하게 된 이경환 팀장을 미국계 부사장이 전체 매니저들이 모인 자리에서 『여기 이분은 당신들이 안전을 수행하는데 있어 올바른 안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해주는 사람입니다. 즉, 이분이 직접 안전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이 안전을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라고 소개한 대목이 인상 깊다.

또한, 현장 근로자가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하면 직속 상사 3명까지 해고조치한다.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만큼의 책임을 부여한다.

이러한 결단 있는 제도 정착은 TOP의 굳은 안전의식이 없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다. 조사

MKC의 환경안전보건지침(ESH : Environment Safety Health)

실리콘 웨이퍼 제조공정 중 고압전기와 고독성 물질 사용에 따라 전기와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이 크다.

그러나 MKC에서는 설비를 설치할 때부터 기계, 기구의 유지·보수시 갑작스런 에너지 방출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Lockout/Tagout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전기기계기구에 대한 Lockout 시에는 담당자의 사진, 주소, 전화번호 등 응급시 연락이 가능한 모든 것을 기재하도록 하고, 열쇠는 담당자만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위험 물질에 대해서는 모든 배관을 이중관으로 처리하였으며, 취급 물질에 대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서 응급조치까지 MSDS를 부착토록 하고 이는 반드시 교육을 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FSM이 법제화되기 이전부터 실시되었다. 또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설비 주변에는 샤워기를 설치하여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비, 설비 등의 신규 프로젝트 수행시 사전 안전·환경 검토를 수행한다. 모든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예산승인서에 안전관리자가 SHEE(Safety, Health, Environment, Ergonomics, Energy) Review를 했다는 승인이 없으면 경



영진과 구매 관련부서의 승인이 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모든 위험한 작업에는 반드시 현장책임자, 안전관리자의 확인을 받은 후 매일 안전작업허가서를 해당작업부서 1부, 안전부서에서 1부를 보관하고 1부는 작업현장에 게시하여 관리하고 있다. 현장 점검시 작업 현장에 안전작업허가서가 비치되지 않고 작업하는 것이 발견되면 즉시 퇴장조치한다.


또한, 작업자에게 적절한 보호구를 제공하므로써 작업으로 기인한 상해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방독면에 대해서는 매년 작업자의 얼굴형태에 맞는지, 작업을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밀착도검사와 폐기능검사를 실시한 후 작업자에게 적절한 호흡용보호구를 지급한다.

이 밖에 신규직원이 들어오면 각 부서의 관리자급은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업무를 신규 직원에게 가장 먼저 알려줘야한다.그후에 생산과 관련된 가 실시되도록 제도화되어있다.



지금까지 MC의 ESH가 궤도에 올라 오는데 5년이 걸렸다고 한다. Off JOB에 대한 안전관리가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이 경환팀장은 말한다.

아직도 이루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것이 이곳 관계자들의 이야기이지만, 지난 4월에 대한상공회소로부터 남녀고용평등대상 우수상과 경총에서 보람있는 직장 대기업부분 우수상을

수상하여 김송자 노동부 차관과 현정택 여성부 차관이 방문하여 MC의 복지에 놀란 사례를 볼때 우리에게 시사하는바가 크다. 

<기사·사진 최종덕>